



### 포교방송 전문경영 시대 열자

불교방송과 불교TV 책임자가 전문 경영인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 바 지식사회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온갖 삶의 기능을 일깨워주는 기구의 책임자가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 필요성이 어디 불교방송과 불교TV 뿐이겠는가. 더구나 대중을 상대로 매스·미디어를 운용하되, 보편적이고 감동을 주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전파미디어를 운용하는 위치라면 더욱 그러하다. 전법의 인연은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메카니즘의 발달에 발맞춰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당연한 필요성이 풀출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사장자리'를 결정함에 있어 한 전문가가 오래도록 막은 기량이나 매스·미디어에 대한 문화적 역량보다는, 정파와 종파 또는 방송 외적 필요성이나 즉흥적 유용성을 우선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불교정신·사회적 저널리즘 조화 진실과 충실한 설득방법 찾아야

물론 이런 경우 '전문적 경영인'에 대한 해석은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를 수도 있다. 또한 그와 같은 다른 해석은 방송의 영향력과 경영 모두에 한계를 나타내고, 갈등과 사람 바꾸기 약속환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대체 방송 전문경영이란 게 무엇인가. 방송이란 게 돈이 드는 사업인 만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수입 창출 기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순위에 있어 그 함축이 우위일 수는 없다. 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경영하는 방송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분야가 분명한 경우에는 많은 전문분야의 사회적 접근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불가결한 경영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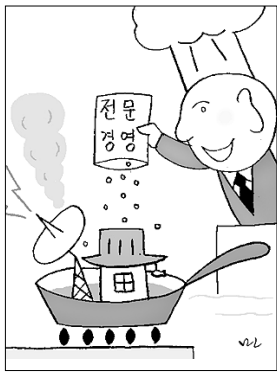
내 개인적 의견이지만, 특히 종교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반에 그 종교의 정신과 철학이 깔리게 하면서 사회적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게 정상이란 생각이다. 그 종교의 예배장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리고 방송의 필연적 기능인 사회적 의제설정을 위한 분명한 소신과 예측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이들 덕목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잘못 되었을 때는 비로소 책임을 지고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이다. 한 분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고 직·간접으로 이를 전달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교계 방송도 이제의 결코 소수의 수용자를 위한 방송체계에 대한 해석은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를 수도 있다. 또한 그와 같은 다른 해석은 방송의 영향력과 경영 모두에 한계를 나타내고, 갈등과 사람 바꾸기 약속환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능히 처리해나갈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경영인'이라고 부른다.

■ 김학천(연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



# 사찰 역사 문화·수행환경 보호 '의무화'

## 문광부·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협의

사찰 역사문화 및 수행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 방문 시 조계종 종정 범전 스님에게 약속한 '역사 문화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최근 문화관광부와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 협의를 마쳤다.

이 안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도입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사찰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전통사찰'과 '경내지' 개념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종단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에게 전통사찰 역사·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주변 환경 침해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찰과 사찰 또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 지역 유지 등의 전통사찰 보존 조사·심의 활동을

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비한 심의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해

### <주요 내용>

- 역사문화 보호구역 도입
-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설치
- 경내지·전통사찰 개념 명확히
- 종단 인사권침해 조항 개선

을 근거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전통사찰 보존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불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서 허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해, 본래의 역사 문화

이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도록 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이란 전통사찰 경내지 외 지역으로, 전통사찰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문광부 장관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 건조물과 경내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내지 주변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공용수용·사용 제한처분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전통사찰 '소유지'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 받은 토지도 명시해 전통사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 모두 경내지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전통사찰 주지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사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했다.

이 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회 상정 및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조계종은 전사법 개정과 병행해 역사문화보존구역과 관련된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도롱뇽소송 '기각'

### "환경법 퇴보 판결 지속적 대응 전개" 지을 스님 기자회견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자연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제10 민사부(부장판사 김동욱)가 지을 스님(부장판사 김동욱)가 지을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낸 '도롱뇽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지을 스님과 천성산 전국 비산대책위는 4월13일 부산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을 스님은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미타암과 내원사가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내원사와 미타암 소유의 땅 500만평에 대해서는 문화와 자연환경보존을 이유로 모든 행위를 제한해 왔으면서도 수호권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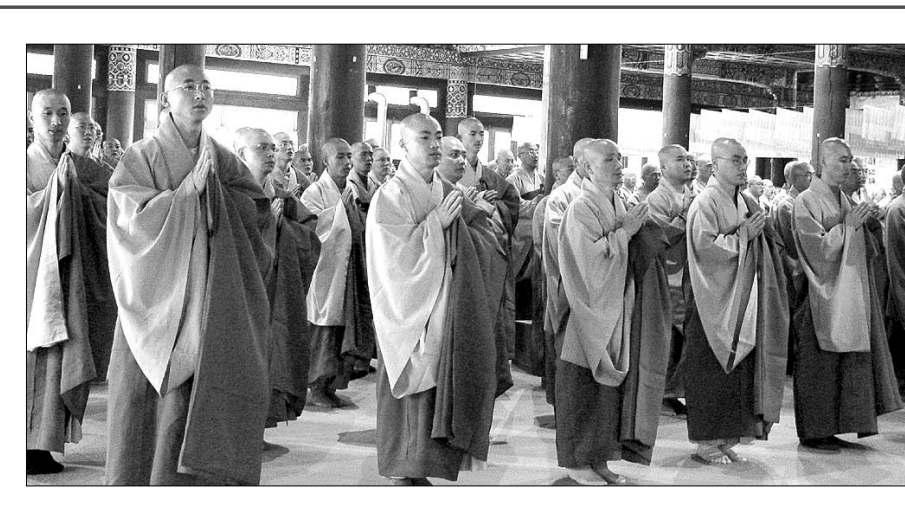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을 스님은 "회화의 역사를 쓰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동백울에서 '지을, 숲에서 나오다' 출판 기념회를 가진 지을 스님과 천성산 비대위는 향후 부산 고법 항소와 현장 투쟁을 함께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4월 20일 오후 6시 30분 동서서적에서 '천성산과 거지 성자 노이아르의 만남' 행사를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녀님과 거지 성자 노이아르가 함께 동참하는 천성산 보호를 위한 자전거 투어와 '기차길 옆 오막살이'라는 천성산 보존을 위한 퍼포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독후감 모집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직 한 후 99년부터 문화관광부 종무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문화관광부 감사관, 문화정책국장 등 문화재와 문화예술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유진 기자



### 새스님 343명 탄생

### 통도사서 단일계단 수계산림

조계종 제 2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화랑되면서 191명의 비구와 152명의 비구니 스님이 탄생했다.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수계산림은 3월 12일 치러진 4급 승가고시 합격자와 사미, 식차마나니 등 총 346명이 참여해 343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양산=천미희 기자

### "北 불교문화복원 추진본부 세운다"

### 법장 스님, 교구본사 간담회서 밝혀

최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단청 지원, 사찰기와 지원 등 북한 불교 문화재 복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북한 불교문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북한불교문화재복원추진본부(가칭)'가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2일 백

양사 관광호텔에서 열린 '백양사·대흥사·선운사 교구 분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교문화재 복원뿐 아니라 세미나 등 학술분야까지 담당하게 될 공식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총무원 사회부장 미

산스님은 "총무원에서 북한관련 기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할 교구 주지스님들도 본사 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법장 스님은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직할교구 교구 분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엽·남동우 기자

### 문화재청 초대차장

### 이승규 씨 임명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이승규(56·사진) 이사장이 4월 16일 문화재청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이승규 차장은 1967년 기술직으로 공직을 시작해 행정직으로



유유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제 29대

# 법주사 주지 진산식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제 29대 주지 도공스님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4월 22일 (음력 3. 4. 목) 오전 11시**  
**■ 장 소 : 속리산 법주사 용화보전 앞**  
**■ 연락처 : (우)376-863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종무소 ☎ 043)543-3615 전승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